現象學的 知識社會學에 관한 考察

金 善 建

〈目 次〉

1. 序 論
2. 知識社會學의 現象學的 근거
3. 現象學的 知識社會學理論 檢討
가. 버거와 루크만의 方法論的 基礎
나. 制度化와 合法化
다. 內面化
4. 結 論

1. 序 論

이제까지 지식 사회학은 일반인들에게는 사상사의 사회학적 해설로서 완고한 유럽취향의 특수 분야로 간주되어 왔으나[1] 오늘날에는 점차 폭넓은 관심과 이해를 얻고 있다. 지식사회학의 성격과 대상의 범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식사회학은 인간의 사고와 그것이 발생한 사회적 배경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지식 사회학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의 사고와 사회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 즉, 思考의 존재 구속성 (Seinsverbundenheit) 에[2] 사회학적 촛점을 맞추는 사회학의 한 분야로 정의될 수 있다. 지식 사회학의 대상은 단지 인지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고의 표현 형태인 지적 産物의 모든 영역, 즉, 일상적인 言語 行為로부터 哲學, 宗教, 法, 관습, 정치 사상, 이데올로기 등 광범위한 분야에 이르고 있어 종교 사회학, 법 사회학, 정치 사회학, 문학 사회학 등이 지식 사회학의 응용 분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 사회학의 핵심적 주제는 지식과 사회구조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말은 어떠한 사고 범주나 지식은 그것이 발생한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 要因이 사고나 지식에 영향을

1) Peter L.Berger and Thomas Luckmann (1966), The So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Doubleday.

2) Karl Mannheim (1936), Ideology and Utopia, trans. by Louis Wirth & Edward Shil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pp.237-8.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지식 사회학에 대한 관심은 70년대에 들어와 다시 증대 되었는데 현대 사회학에서 지식 사회학의 연구는 대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지식 사회학의 이론을 구성하려는 연구이며, 두번째는 다양한 知的 産物을 사회, 경제적, 문화적 변수로 규명하려는 경험적 응용적 연구이다.

우리 나라에 지식 사회학이 소개되어 주목을 받게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어서 지식 사회학의 학문적 성격, 연구 대상과 범위, 방법론과 이론 체계 등이 아직도 모호한 채로 남아 있어 많은 오해와 개념적인 혼란의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지식 사회학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도 생소하고 어느 의미에서는 어려운 학문으로 느끼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 학문 자체의 성격이 너무 포괄적인 점도 있으나 보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학계에서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와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사실 지식사회학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난해하거나 생소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미 친숙하게 알고, 살아가는 생활 세계와[3]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측면을 갖고 있다. 生活世界란 日常的인 의사 소통의 흐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세계인 것이고 따라서 우리 모두의 삶이 行動으로 끊임없이 펼쳐지는 場이다. 문제는 이와같은 생활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보여 주는 일, 즉, 우리 모두가 받아 들이고 있는 사회 세계의 당연시된 의미를 客觀的 現實로 문제없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 들일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유보하여 사회세계가 구성되는 과정도 그 자체가 문제시 될 수 있는 硏究對象임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4]

본 논문은 이와같은 입장에서 지식 사회학의 觀點을 보다 明確하게 하고 體系化 하여 보려는 의도에서 지식 사회학에 있어서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의 有用性과 限界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식 사회학의 성격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現象學的 知識 社會學이 지식 사회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고, 둘째는 일반 사회학 이론과의 관계의 측면인데, 社會的 行為의 分析 理論으로서 지식 사회학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현상학적 기초와 관련하여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와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현상학적 입장에서 지식사회학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버거(P.L.Berger)와 루크만 (T.Luckmann) 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봄으로써 현상학적 지식 사회학의 유용성과 한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

3) Edmund Husserl, The Crisis of European Science and Transcendental Philosophie, Northwestean Univ. Press, 1970 .

4) Paul Filmer (et al), New Directions in Sociological Theory, MIT Press, 1972; 그리고 拙稿, "조직에 있어서의 社会的 行為에 관한 考察", 济州大学 論文集, 14輯, 1982.

2. 知識社會學의 現象學的 근거

지식 사회학의 현상학적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식사회학에서의 認識論의 문제와 현상학과의 관계가 주요 관심사가 되는데 우선 인식론의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지식 사회학은 만하임(K. Mannheim)이후 인식론적 딜렘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미궁에 빠져 있다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지식 사회학에서 인식론적 문제를 제외시켜 경험적인 이론체계에만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인식론 자체를 포괄하여 의식의 본질 규명을 기초로 이론을 세우고자 하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의 입장은 지식의 기원과 발생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명백히 하지 못하여 이론상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후자의 입장은 상대주의, 사고의 타당성, 객관성의 문제와 같은 인식론적, 철학적 논의로 일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학적 지식 이론은 사실상 인간의 사고 작용에 관한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식사회학이 철학 이론과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식의 본질과 기원에 관한 인식론적 연구를 지식 사회학 분야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머튼(R. K. Merton), 달케(O. Dahlke), 볼프(K. Wolff)로 代表되는 비판들은[5] 지식사회학이 인식론적 난관에 부딪쳐 오히려 경험적 연구가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식론과 지식 사회학의 상호협력을 주장하는 규르비치(G. Gurvitch) 조차도 사실상은 양자의 분리를 전제로 한 주장이었다.[6] 두 입장이 모두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사회구조와 세계관을 다루는 巨視的 지식사회학 이론은 의식과 지식의 發生과 本質에 관한 미시적 분석이론인 인식론을 전제로 해야만 성립 가능하다는 사실만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어떻게하면 相對主義的인 인식론적 혼란에 빠지지 않고 경험적 지식사회학 이론을 구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된다.

지식 사회학이 지식과 사회구조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식 사회학의 중요한 관심은 지식 사회학이 사실상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와 지식사회학이 사회학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라고 하겠다. 사실 이 문제는 현재의 사회학의 위치에서 볼 때 매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으나 여하튼 지식사회학은 지식이 생산되어 확립되고 분배되고 변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사회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라는 문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5) 이와같은 입장을 〈Substantive-Wissenssoziologie〉라 한다. 송호근, "Substative Wissenssoziologie 理論의 定立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사회학연구, 제 14 집, 1980. 참조

6) G.Gurvitch, Soial Framework of Knowledge, N. Y: Harper & Row, 1971. Chop. 1.

일반 사회학 이론도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 생산, 분배되어 사회적 행동의 근거가 되는 방식을 설명하여야만 하는데, 그 설명이 사회 체계는 사회적으로 이용가능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진술에 그친다면 이것은 同語 반복일 뿐이다. 문제는 어떻게 지식이 사회체계의 유지, 변화에 관련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식 사회학은 우선 지식과 사회가 상호 영향을 주고 받고 하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이론적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식의 내용과 사회 구조 사이의 관계의 성격을 밝히는 사고의 존재 구속성에 대한 연구는 존재적 맥락을 의미의 영역으로 편입시켜 그 의미를 좀더 깊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며 여기에 이해의 方法으로서 지식 사회학의 필요성이 있다. 의미의 맥락으로서 사회적 존재는 맹목적 자료이기보다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대응 영역인 것이다. [7] 그러므로 사고 체계, 이데올로기, 문화적 산물 등은 물론 사회적 행위까지 포함하는 지식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특정한 사회 - 역사적 맥락 위에서 바로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적 행위의 분석 이론으로서의 지식 사회학을 기대할 수 있는데 요컨대 행위의 의도성을 행위의 존재적 상황과 관련하여 파악하는 것이 된다. [8]

인간과 사회 구조는 현상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계급, 권력, 직업, 교육, 규범 등과 같은 사회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실재적 구조와,이를 인지하는 주관적, 의미적인 해석과 인지에 의해서 형성된 또 하나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일반 사회학에서 다루었던 사회 구조는 대부분이 실재적 구조였다면 현상학파에서는 실재구조 자체보다도 그러한 실재를 인지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9] 현상학적 사회학은 일상적 생활세계와 유리된 지식보다는 일상적 세계를 구성하는 상식에 대하여 기본적인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현상학적인 기초에 입각한 지식 사회학은 엘리뜨 집단의 지식과 일상인들의 지식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일상인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지식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므로 개인에 외재하는 추상적 의미의 지식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상호 주관적 의미가 중요성을 갖는다. 현상학적 사회학의 방법론적 기초는 훗설(E. Husserl)과 슈츠 (A. Schutz)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공헌에 대하여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세계의 문제가 인식론적인 수준에서 최초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훗설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10]

---

7) K. Mannheim, op. cit, pp. 279 - 81

8) A. P. Simonds, Karl Mannheim's Sociology of Knowledge, Oxford; Oxford Univ. Press, 1978, pp 133 - 8

9) 김일철, "사회개발의 논리", 한국사회학, 16 집, 1982. p. 9

10) Edmund Husserl, op. cit. 그리고 한상진, "생활세계의 문제의식과 사회과학" 현상과 인식, 제 7 권 1 호. 1983 참조

자연적 지식과 직관적 지식을 구분하고 있는 훗설은 지식의 개념을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호주관적의미로서의 생활세계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보았고 과학이 가능한 것도 이와같이 인간의 실제적 관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다. 그가 발전시킨 생활세계의 개념은 일종의 지식공동체로서 인간의 관심이 대상을 향해 지향해가고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며 의미를 창출시키는 모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과학자 역시 생활세계 안에서 대상을 이해하고 행동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생활세계 안에서 당연시되어진 가치와 편견들이 과학적 활동안에 스며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훗설에게는 이처럼 이미 당연하게 주어진 가치들을 의문시 하지않고, 다시말해 생활세계의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치지 않은 채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여 지식의 객관성을 확립하려는 실증주의적인 노력은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현상학의 기본과제는 주어진 가치구조에 대한 엄밀한 연구와 성찰로 보았으며 모든 과학자들에게 지식의 객관성을 논하기 전에 지식의 전제조건들을 명확히 인식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11]

이와같은 훗설의 입장을 계승한 슈츠는 베버의 이해의 방법을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현실의 영역에 적용하고 있다. 슈츠는 사회적 행위의 의미를 강조한 베버의 입장에 입각하여 행위의 의미가 어떻게 발생하며 그 성격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해의 방법이 갖고 있는 인식론적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함으로서 베버의 이해사회학을 현상학적 사회학으로 발전시켰다 하겠다 [12] 슈츠는, 사회구조에 관한 분석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미의 이해를 포함하는 해석적 범주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세계의 현실은 자연세계의 현실과는 달리 의미구성체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에게 의미를 갖는 한에 있어서 사회적 현실로 존재하는 것이다. [13] 이와같은 슈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지식도 생활세계에서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을 생활세계로 부터 분리시켜 연구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현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오류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현실이 상호주관성에 의해서만 의미있는 개별행위자의 의식

11) 토마스 쿤의 "파라다임"도 이와같은 입장과 일치한다. T.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Univ. of chicago press, 1962

12) 슈츠는 사회과학의 본질적인 기능은 사회행위의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해석적이어야 한다는 베버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베버가 이해, 주관적의미, 행위의 본질적인 특성등을 명백하게 진술하는데 실패했다고 보았다. A. Schutz, The Phenomendogy of Social World, trans. by G. walsh and F. Lehnert, London: Heinemann, 1967, Introduction 참조

13) David Walsh, "Sociology and the Social World" in P.Filmer et.al, New Directions in Social Theory, MIT Press. 1972.

에 의해서 구성되었다면, 그것의 본질도 순수한 성찰에 의해서, 즉 현상학적 환원에 의해서 연구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슈츠는 훗설의 인식론적 입장을 사회의 본질파악에 적용하여 인식대상을 사회세계에 두고[14] 사회 세계와 인식행위자인 인간들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의 사회학적 시각은 사회세계의 본래적 특성을 상호주관성으로 파악하고 그 상호주관적 세계가 익명화, 객관화하여 가는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성격을 명백히 드러내고자 하였다.[15]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생활세계의 사회적 본질을 체계화한 현상학은 개인의 의미수준과 지식의 사회적 성격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흔히 지적되고 있는 바, 지식사회학이 개인의식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측면은 현상학적 시각에 의해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이다.

3. 現象學的 知識社會學理論 檢討

가. 버거와 루크만의 方法論的 其礎

슈츠의 현상학에 근거하여 지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 대한 현상학적 기초를 제공한 사회학자는 버거와 루크만인데[16] 현상학적 지식사회학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는 이들의 이론을 검토하여 보자. 버거와 루크만은 자신들의 저서 1장에서 "이 책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 실체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지식사회학은 바로 이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고 하고[17] 계속하여 개인이 사회속에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內面化(또는 社會化)라는 개념으로, 사회가 주관적 실체로 되는 과정을 외현화(Externalization)로, 객관적 실체로 되는 과정을 객체화 (Objectification)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식사회학은 "사회內에서 「지식」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18]고 하면서 이제까지 지식사회학의 대상을 "관념의 영역, 이론적 사고의 영역"[19]에만 국한시켜 온 이전 이론가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

14) 훗설의 생활세계가 슈츠에게는 사회세계로 되는데 생활세계의 사회적 성격은
① 개인은 세계에 대한 의미를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화를 통해서 습득한다는 점과
② 생활세계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J. Wolff, Hermeneutic Philosophy and the Sociology of Art, London, RKP. 1975, P. 17.

15) 강수택, "현상학적 사회학의 사회구조론 연구를 위한 시론", 한국사회학연구, 제 5 집, 1981.

16) Berger and Luckmann (1966). op. cit.

17) Ibid., p. 14 ~ 15

18) Ibid., p. 26

19) Ibid., p. 24

점에서 그들은 하나의 독특한 지식사회학, 즉 '사회적 지식의 사회학'이론을 만들어 냄으로써 지식사회학 분야를 확장시켜 일상인의 상식까지 포함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보여진다. [20]

슈츠의 현상학적 관점에서 출발한 버거와 루크만은 자신들의 이론수립에 뒬껭과 베버, 그리고 마르크스의 관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지식이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내면화되는 방식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주요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1]

버거와 루크만은 「현실의 사회적 구성」에서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현실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은 객관적인 동시에 주관적인 것으로 변증법적으로 상호연관되어 있다. 면접적 관계 (face to face relation)에서 나타나는 상호주관성은 기호체계 (Sign System)에 의해서 개인들에게 전달되고 일반화된다는 현상학적 사회학의 전제에서 출발하여 자신들의 지식사회학이론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논의하고 있다. 즉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현실이 제도화되고, 합법화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이 3가지 과정을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기초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실의 사회적 구성'이 근거하고 있는 유기체적 환경은 사회적 현실의 성격을 제한하는 조건이 되며 사회질서도, 최소한 인간 유기체의 불안정성은 안정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자체창조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현실의 제도화, 합법화, 내면화는 '사회질서'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중심적인 개념으로 버거와 루크만은 '처방적 지식 (receipe knowledge)'과 '사회적으로 축적된 지식 (soci-al stock of knowledge)'을 제시하고 있다. 지식을 완전히 사회적인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이 두가지 개념은 사회세계를 지탱하는 고리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처방적 지식'은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일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범주화되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가능한 통합된 전체지식에 해당하는 '사회적으로 축적된 지식'의 중심적 구성요소가 된다. [22]

---

20)물론 상식이 지식의 기본형식으로서 상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주장에는 수긍이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식이외의 지식을 단순히 파생적인 지식으로만 취급해서는 안될 것 같다. 상식적 지식과 다른 형태의 지식, 상징적 체계와의 관계를 접근하는 보다 정교한 방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3의나 참조할 것.

21) 보다 구체적으로는 슈츠의 현상학이 철학적 토대와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에 입각하여 마르크스의 인류학과 변증법적 관점, 뒬껭의 사회적 사실의 개념 그리고 베버의 주관적 의미로서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개념등이 하나의 이론으로 결합되고 있고 여기에 다시 미드의 사회심리학 이론까지 보강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22) Ibid., p. 56

나는 특정한 양의 지식을 갖고 매일 매일의 상식세계에 살고 있다. 더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적어도 나의 이러한 지식의 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또한 내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나와 타인들의 상호작용은 이용가능한 사회적으로 축적된 지식에 우리들이 공동 참여하는 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같이 사회적으로 축적된 지식은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 주문되는 '처방적 지식'의 전체구조를 이루면서 개인들에게 친밀성의 정도가 다른 현실을 제공한다. "그것은 내가 자주 다루어야하는 일상생활의 부문에 대해서는 복잡하고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일반적이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23] 이와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정형화된 틀을 이용함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러한 지식의 타당성은 당연한 것으로서 다만 그것이 문제시 될 때에만 의문을 갖는다. [24]

버거와 루크만은 사회적으로 축적된 지식이 실제로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생략한 채 제도화, 합법화, 내면화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축적된 지식이 문화적 전체성이나 사회집단의 이해관심에 따라서 생성되는 실제적인 메카니즘을 논의하지 않고 단지 사회적으로 분배된 축적된 지식이 일상생활에서 기술적으로 복합적인 지식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만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어 그러한 지식의 실제적 구조와 그것을 형성하는 사회구조와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가 아쉽다.

나. 제도화와 합법화

버거와 루크만은 지식의 사회적 발전을 주로 사회질서를 만들어 내는 방식에 관한 개념적틀에 한정시켜 논의하면서 사회적 현실도 기본적으로 행위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구성된다는 입장에서, 즉 지식을 인간의식에 대한 제약적 메카니즘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사회적 현실의 본질에 관한 뒬껭적 관점은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마르크스의 인류학적 관점과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버거와 루크만은 계속하여 사회질서가 어떻게 구성되고 유지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선 특정한 행위자들이 취하는 습관화된 행위의 상호정형화로서의 제도화를 사회통제의 일차

23) Ibid., p. 57

24) 개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정형화는 버거와 루크만이 '관련성 구조'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서 이용 가능하게 된다. Ibid., p. 45.

적인 메카니즘으로 보고 있다. [25] 습관화된 행위는 물론 처음에는 수정되기도 하지만 일단 새로운 세대로 전승되면 그것은 개인에 외재하면서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버거와 루크만은 이와같은 전승의 메카니즘은 제도적 세계의 정당화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의미수준에 있어서 설명되고 정당화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제도화에 대한 이해에는 구성원들의 지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버거와 루크만은 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를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적 질서에 대한 합의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와같은 질서에 대한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제도화된 행위규범에 관한 처방적 지식으로 구성된 사회적 현실에 관한 지식은 사회적 현실과 서로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버거와 루크만은 사회질서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사회질서의 합법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지식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왜 특정한 제도화가 발생하고 그것이 다시 사회적 행위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규범적행위에 관한 어의적 지식에 의해서 어떻게 유지되는가의 측면은 설명되지 않고 있다.

버거와 루크만은 언어는 전통을 담는 그릇으로서 사회적 현실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전승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6] 그러나 왜 그리고 어떻게 언어가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의 전승기능을 수행하는가라는 의문이 남게 된다. [27]

이와 유사한 유보사항은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도 지적될 수 있다. 버거와 루크만은 제도는 역할에 의해서 **內面化**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나 [28] 모든 역할이 다 제도적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고 역할과 관련된 사회구조와 지식구조와의 관계를 충분히 논의하고 있지 않다. [29]

버거와 루크만은 '2차적 질서의 객관화'로서 합법화과정을 논의하면서 합법화의 기능은 "제도화된 일차적 질서의 객관화를 객관적으로는 이용가능하게 주관적으로는 그렇듯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고있다. [30] 제도적 질서는 개인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므로

---

25) Ibid., p. 53～67.

26) Ibid., p. 51～52

27) 의식이 발생하여 구성되는 측면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언어의 역할을 참조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행위 유형이나 동기의 유형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 언어적 요인이 간과되지 않도록 사회학자들도 언어의 잠재적 영향력을 통찰할수 있어야 한다. J.wolff, op. cit, p. 30

28) Berger and Luckmann, op. cit. pp. 72-9

29) 제도화와 지식의 역할분화는 역사적 문맥에서 노동분화의 정도, 경제적 잉여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0) Ibid., p. 92.

합법화는 일상생활을 가장 일반적인 준거틀에서 가능하게 하는 '상징세계'(Symbolic Univ-erse)를 만들어 낸다. 사회질서와 지식을 결합시키고 있는 버거와 루크만의 논의에 있어서 '상징세계'의 개념은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버거와 루크만은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합법화의 수준을 가장 단순한 이론이전의 수준으로 부터 가장 추상적인 수준까지 4가지 분석적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31]

> 그것은 의미의 서로다른 부분들을 융합시키고 제도적 질서를 상징적 총체로서 포함하는 이론적인 전통의 무리이다. … 상징적 분야가 합법화의 가장 포괄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는 쉽게 알 수 있다. 실용적 응용분야는 단연코 초월된다. 합법화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전혀 경험될 수 없는 상징적 총체의 방법을 통해서 발생한다.

버거와 루크만의 상징세계의 개념은, 세계관과 유사한 개념으로 모든 생활의 영역을 포괄하며 문화적으로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모든 제도와 제도적 역할의 통합을 의미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그런데 상징세계는 그 자체의 정당화 문제가 발생할 때 기능할 수 있는 세계유지의 개념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같은 초-정당화기능은 주로 신화로 부터 신학, 철학, 그리고 과학에 이르기까지 이론의 체계적인 발전을 가져왔다.[32] 세계유지의 개념기구는 사회적으로 조직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상징세계의 유지를 그러한 상징세계를 지지하는 집단이 갖고 있는 사회구조적 근거의 상대적인 힘과 관련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33]

모든 상징세계와 합법화 과정은 인간의 산물이며 따라서 상징세계를 구체적인 사회적 문맥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버거와 루크만의 입장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버거와 루크만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개인주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Holistic)개념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체계의 문화적 전체성을 나타내는 이와같은 관념은 사회적 현실을 구성원에 의해서 구성된 것으로 보는 관점과 부합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34]

---

31) Ibid., p. 113.

32) 이와같은 정당화의 이론 수준은 베버의 "세계의 마술로 부터의 해방"과정에 상응한다.

33) 버거와 루크만은 이러한 개념적 틀인 상징세계 자체를 이데올로기로 부르고 있지 않으나 우리는 여기서 마르크스적인 이데올로기 개념을 볼 수 있다. P. Hamilton, Knowledge and Social Structure, London, RKP, 1974. p. 144

34) Ibid.,

다. 內 面 化

버거와 루크만은 계속하여 사회적 현실의 內面化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일차적 사회화와 이차적 사회화를 논하면서 구체적으로 일생생활의 객관적 현실을 개인의 주관적 현실로 전환시키는 메카니즘을 다루면서 분석의 틀로서 미드(G.H.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의존하고 있다. '중요한 타자'의 역할을 거쳐 '일반화된 타자'의 역할이 어린이의 內部에 개념화되어 자리를 잡게 되면 일차적 사회화는 끝이나고 이제 2차적 사회화가 제도적 역할의 내면화 과정을 떠맡게 되는데, 어떤 역할이 내면화되는가는 노동분화에 좌우되지만 2차적 사회화과정은 특정역할에 관한 언어획득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역할취득은 버거와 루크만에게는 기본적으로 규범적 활동이라기 보다는 인지적 활동이 되며 이 과정에서 언어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역할에 대한 지식은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전형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와같은 버거와 루크만의 견해에서 전형적 행위자와 전형적인 상호주관적 의미세계 구성에 관한 슈츠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차사회화와 이차사회화 사이의 실제적인 역할분담은 역사적으로 실제의 사회적 지식의 배분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 이차 사회화에 대한 버거와 루크만의 분석이 그들의 전체이론에서 수행하는 것은 일종의 미시사회학으로서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제도화와 합법화로서 사회화의 구조적 측면에 관한 거시적 이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미시사회학적 요소와 거시사회학적 요소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볼 수 있는데 버거와 루크만은 이것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에 관한 전체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변증법은 상호연관되어 있다는 것 이상의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다. 사회적 현실의 구성은 사회화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두과정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結 論

이제까지 현상학적 지식사회학의 성격과 유용성을 밝혀보려는 의도에서 현상학적 관점을 지식의 분야에 적용시킨 버거와 루크만의 지식사회학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버거와 루크만의 이론이 비록 절충주의적이고, 철학적 사변적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이론에 담겨져 있는 풍부하고도 날카로운 통찰력은 현상학적 지식사회학의 이론적 기초를 세우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엄밀한 경험적인 이론으로서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같이 아직도 여러가지 面에서 한계를 갖고 있으나 지식사회학을 현상학적 전통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그렇게 하는 하나의 방법을 버거와 루크만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겠다.

버거와 루크만의 이론을 주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논의한 것도 현상학적 지식사회학이 갖고 있는 유용성을 드러내어 그것을 보다 충분히 발전시켜 보고자함이었다. 지식사회학은 결국 지식이 생산되고 확립되어 분배되고 변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사회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라는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버거와 루크만이 중심적 목표, 즉 "인간의 모든 지식이 사회적 상황속에서 발달되고 전달되며 유지되는한 지식사회학은 당연시된 현실이 일반 사람들에게 고정되는 방식대로 지식의 형성을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많은 이론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버거와 루크만 이론의 유용성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식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地平을 넓혀 주었다고 하겠다. 이들은 지식사회학의 대상을 확대하였고, 일반사회학이론과의 연결을 시도한 점에서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현상학적 시각에서 지식사회학이론의 재구성을 시도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주관적 의미가 객관적 사실성이 되는 방법에 대한 탐구를 문제로 제기하고 어느정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지식 사회학에서 개인의 의식을 다루기 위하여서는 현상학적 시각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의 의미가 집단적 수준으로 전이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생활세계의 사회적 본질을 체계화한 현상학에 입각하여 개인의 의미수준과 지식의 사회적 성격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점에서 버거와 루크만의 현상학적 지식사회학 이론은 예술의 사회적 성격을 밝히는 이론으로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35]

이제까지 검토한 여러가지 이론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현상학적 지식사회학의 전망은 이론적인 통합보다는 방법론적인 체계화에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식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분석적 틀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론적인 쟁점들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현상학적 지식사회학의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현상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를 축적하는 일이다.

35) J. wolff, Hermeneutic philosophy and the sociology of art, op.cit., 가 좋은 예이다.

— Summary —

A Consideration on the Phenomenological Sociology of Knowledge

by Suhn-gun Kim

The primary focus of phenomenologically based sociology of knowledge has been, following Schutz and Husserl,an emphasis on the commonsense construction of everyday reality,rather than the analysis of specifically intellectual consciousness as entities seperate from mundane everyday knowledge. Among sociologists, it is primarily Berger and Luckman who, following Schutz, make explicit the phenomenological foundation of the premiss that knowledge is socially derived. The aim of this work has been to review critically the potential uses of phenomenologically based sociology of knowledge.

Berger and Luckman divide their major work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into two parts, two seperate but dialectically interlinked analysis of society as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reality. Starting from the presupposition of phenomenological sociololgy, the authors discuss the central analytic elements of their theory;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Legitimation and Internalization of intersubjectively constructed social reality. Although their study has many theoretical problems, Berger and Luckman show successfully how society exists as subjective reality in the individual consciousness, and how it subsequently, through a process of objectification and reification, appears as objective reality. I would contend that their analysis can be extended into other branches of sociology of knowledge; the sociology of art.